

# 서양악기 연주하는 中 비구니 악단 '눈길'

새하얀 승복을 입은 비구니 스님들이 높은 절벽에 서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는 장면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중국 허베이(Hubei) 성 티안타이(Tiantai, 이하 '천태') 산 정상에서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이런 모습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인민보 영자판(english.people.daily.com.cn)은 9월 4일 "4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로 구성된 구양수안(Guangxuan) 예술단이 허베이 성 천태산 정상에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무대를 꾸몄다"고 보도했다.

구양수안 예술단은 천태사에서 수계한 7세부터 42세까지의 사미니, 비구니 스님들로 구성, 2008년 3월 결성된 악단이다. 구양수안의 특징이라면, 전통 악기가 아닌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은 서양 악기로 전통 불교음악에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무대를 꾸몄다"고 보도했다.



천태산 적벽 위에서 바이올린 연주에 몰입한 구양수안 단원 스님들.



천태산 본전 앞에서 공연 리허설을 하고 있는 구양수안 예술단. 구양수안 예술단은 천태사에서 수계를 받은 7~42세 사이의 사미니,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 2008년 3월 결성됐다.

## 2011년부터 중국불교계 안팎서 불음 전파 무대 열어

### 2008년 결성, 40여 단원 ... 서양악기로 불법 전해

공연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구양수안을 결성할 때만 해도 단원(사미니, 비구니) 모두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단원 중에서는 바이올린을 처음 본 이도 있었으니까요"라고 회상한 쉬 쟁 ?? 오롱(Shi Zheng Xiaocong, 27) 스

님은 "단원들이 악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2년 전부터 수차례 초청 무대를 꾸몄다"며 "전통 연주자에 비금가는 실력을 닦아 보다 많은 곳에서 구양수안의 무대를 선보이는 게 단원 모두의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구양수안 단원의 사중 생활은 여

는 스님과 다르지 않게 하루 7시간 정진을 지킨다. 물론 그 외 시간은 허베이 성의 중앙음악원(Central Conservatory of Music)의 교육을 받으며, 자신들의 음악적 소양을 키우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인민보> 영자판은 "중앙음악원은 구양수안 단원들에게 악기 연주는 물론 성악과 무용도 가르치고 있다"며 "이는 중앙음악원이 중국불교 사상 첫 '사미니·비구니 악단' 이라

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전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은 너무 분주해, 그들이 법문을 듣고 예불을 올리는 시간도 내기 힘들어 하고 있다"고 지적한 천태사 주지 쉬 우례(Shi Wule) 스님은 "그래서 음악이라는 방편이 불교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구양수안의 음악이 단초가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길 바라고 있다"며, 구양수안에 거는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비파(pipa)나 고쟁(guzheng)과 같은 전통 악기를 버리고 서양 악기를 든 스님들을 중국 불교계가 혹은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바라볼 지에 대해 다소 의견 차이가 있다'고 전한 <인민보> 영자판은 쉬 우례 스님의 말을 인용, "음악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양 악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손색이 없다. 다양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11.2m 불상, 美 소도시에 조성

베트남 '화이트샌즈불교센터' ...플로리다서 3번째 규모



미국 플로리다 주 미스 지역에 너비 11.2미터 무게 40톤에 이르는 부처님 열반상이 세워졌다.

인구 7000여 명에 불과한 플로리다 주의 한 시골 도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뉴스 저널(News Journal)> 지는 9월 10일 "너비 11.2미터 무게 40 톤에 이르는 부처님 열반상이 플로리다 주 미스(Mims) 지역의 베트남 불교공동체인 화이트샌즈 불교센터(White Sands Buddhist Center)에 조성됐다"고 전하고, "이는 플로리다 주를 대표할 불상 중의 하나로 손꼽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열린 '부처님 열반상 봉안 법회'에서 경과보고에 나선 모리스 세키오 설리반(Morris Sekiyo Sullivan·플로리다 주립대학) 교수는 "부처님 열반상은 베트남 현지에서 화강암으로 조성, 이곳 화이트샌즈 불교센터의 경내에 마련된 조각공원으로 이운됐다"고 설명했다.

미스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화이트샌즈불교센터의 조각공원에는 베트남불교 대표 상징인 두 개의 '사자 기둥(lion pillars, 약 10미터)', '자비와 지혜의 표상인 '관세음보살상(약 9미터)', 깨달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부처님 수행상(약 11미터)' 등 4개의 불교 상징물이 조성되어 있다.

한편 <뉴스 저널> 지는 "지난 2005년 카이 티엔(Khai Thien) 스님의 원력으로 개원·운영되고 있는 화이트샌즈불교센터는 베트남 불교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식 프로그램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의 운영 방침에 힘입어 플로리다 미스 지역 백인 불자들의 심심까지도 다잡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화이트샌즈불교센터가 10여 년 만에 플로리다 주의 대표적인 불교공동체로 자리매김한 이유"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 "중국, 티베트 정책 전환 시도"

"중국의 티베트 정책이 실제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78)이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대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미국의 소리(VOA)는 9월 13일 (현지시간) "달라이 라마는 지난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티베트자치구(중국명·시짱(西藏))에 대한 중국의 기존 강경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중국 새 지도부가 티베트 정책의 실패를 거울 삼아 티베트 문제를 비교적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VOA는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의 간절한 소망을 지지하는 중국 지식인과 불교 신자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서 티베트 정책 변화의 조짐을 읽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티베트인의 염원은 중국의 통치 아래 '의미있는 자치'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와 중국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역을 통합한 대(大)티베트를 만들어 자치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그가 티베트의 분열을 책동하고 폭력을 배후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이 티베트 정책의 전환 시도에 나섰다 달라이 라마의 주장은 중국 새 지도부의 티베트에 대한 강경 정책 고수 선언으로 티베트 망명 정부와 중국 내 티베트인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일각에선 달라이 라마가 중국 새 지도부에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인도 대담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톱상 상가이 중앙행정사 사장(司長·총리격)은 8월 2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심의 중국 정부 출범 이후 티베트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달라이 라마의 정치적 후계자인 그는 중국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에서 감압 통치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고 있으며 티베트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대만 불광산서 열린 '불교예술展'

12월 18일까지...한 왕조 불교미술 등 131점 전시

대만 불광산(Fo Guang Shan) 일대에서 대규모 'Buddhist Art Exhibit(불교예술展)'이 열렸다.

<차이나 포스트(China Post)> 지는 13일 "인본주의 문화·교육재단(Humanistic Culture and Education Foundation)과 '불광산 불교문화·교육재단(Fo Guang Shan Foundation for Buddhist Culture & Education)'이 9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불광산 '부처님기념센터(Buddha Memorial Center)'에서 'Buddhist Art Exhibit(불교예술展)'을 공동 진행"고 보도했다.

불광산 불교문화·교육재단 측에 따르면, 'Buddhist Art Along the Silk Road(실크로드를 수놓은 불교 예술)'를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산시·간쑤·신강성 일대의 대표적인 불교미술 작품 131점을 '불광산 부처님기념센터'에서 선보인다.

<차이나 포스트> 지는 "이번에 전



한편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모옌(Mo Yan) 작가는 불교예술전을 방문해 '모옌 작가의 실크로드 비디오 클립(Video Clip)' 코너를 진행, 자신이 직접 찍은 실크로드 상의 대표적인 불교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시되는 불교미술품 중에는 한나라 왕조의 불교 미술품이 백미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이 밖에도 실크로드와 운명을 같이 했던 불상과 불화, 구법에 나선 스님들의 가사와 전적 등도 전시의 재미를 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모옌(Mo Yan) 작가가 15일 불광산 '부처님기념센터'를 방문, 전시회 홍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옌 작가의 실크로드 비디오 클립(Video Clip)' 코너를 진행했다. 자신이 직접 찍은 실크로드 상의

대표적인 불교예술 세계를 선보인 모옌 작가는 "중국의 문화는 불교를 근간으로 태동하고 성장했다"고 말하고, "이제는 중국인의 일상에 자리잡은 불교가 '중국인의 도덕적 유전적 등도 전시의 재미를 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옌 작가는 중국 민중의 삶을 해학, 직설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아 201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됐지만, 체제 순응적 작가라는 비판과 중국의 문학작품 검열체제 문제 등으로 수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10세기 아시아 불교미술 기획전

소더비 갤러리, 카라차크라 만다라 등 60여 점 선보여

미국 소더비(Sotheby) 갤러리가 9월 23일까지 올 가을 홍콩에서 마련할 아시아 유물 경매에 앞서 중국·일본·티베트·네팔 등의 10세기 이후 불교미술품 60여 점을 선보이는 기획전을 열었다.

<뉴스 트랙 인디아(News Track India)> 지는 9월 2일 J. 데니스(Jacqueline Dennis, 소더비 아시아 예술부 큐레이터) 씨의 말을 인용, "이번 기획전은 지난 10년간의 경매에서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불교미술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기획전에서 주목되는 작품은 카라차크라 만다라(Kalachakra mandala, 15세기 초)와 부처님 열반(Parinirvana of Buddha, 16세기) 등 20여 점.



이번 기획전에서 주목되는 작품인 부처님 열반(Parinirvana of Buddha, 16세기)

데니스 씨는 "이들 작품은 10세기 이후 아시아 불교미술의 변화의 초점을 그대로 담아낸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 미술품은 10세기 이후 아시아 불교미술의 변화의 추이를 좇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과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제기동 02-966-0020	창원 055-243-6333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新製品

《본 광고문안은 모아 두십시오》

제품 안내서 무료발송

## 'Stuart YD-675 마이크'

단 한 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YD-675 高音質 다이내믹 마이크』의 담백하고, 맑고, 힘찬 소리는 스님의 품위를 한층 높여 드릴 것입니다.

이런 스님께 구입을 권합니다...

- ⇒ 법당 마이크 사용에 너무 힘이 드시는 스님
- ⇒ 스피커의 소리가 안 좋은 법당
- ⇒ 오래된 앰프와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스님
- ⇒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비구니스님
- ⇒ 여러 마이크로 바뀌봐도 효과를 못 보신 스님

법당, 앰프, 스피커 설치, 보완전문!!

유코음향연구소

주요방법: 온형 계좌로 입금후 주소를 Fax나 전화 문자로 넣어주십시오. 입금확인 순서에 의해 3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 송금계좌: 우리은행 1002-610-963886 예금주: 김민화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